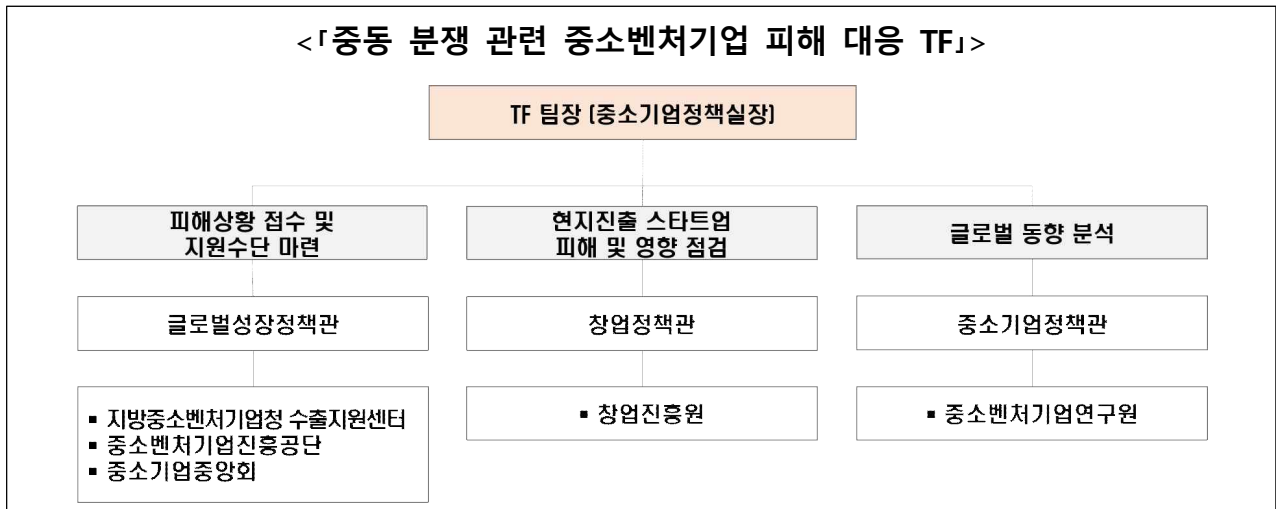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중동 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 대응 TF 1차 회의 개최

- 중소기업 피해 현황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 수출 중소기업과 현지진출 기업 피해는 현재까지 제한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 공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피해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5일 오후 세종 중소기업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동 회의를 통해 수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확산 등 분쟁 상황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이로 인한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이후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동에 수출중인 1만 2천여개 중소기업('23년 기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대응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물류비용 및 유가 상승 등 이번 사태의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동 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 대응 TF」를 통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적 수단이 적기에 강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실장은 “중동 분쟁이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 공격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 만큼 추가적인 교전과 이에 따른 확산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강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실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수민 (044-204-7550)
		담당자	서기관	박승호 (044-204-7556)

